

[59] 이 한 술(李漢述)

본관은 덕수이며, 충무공 손신(舜臣)의 후손인데, 진사에 급제했다.

[60] 임 순 지(任順之)

본관은 풍천이며, 감사(監司) 내신(內臣)의 손자인데, 음사로 군수를 지냈다.

[61] 임 희 지(任羲之)

자는 일소(逸少)요, 본관은 풍천이며, 퇴휴당(退休堂) 내신의 손자이다. 광해군때에 문과 급제하여 벼슬이 사예에 이르렀으나, 인목대비를 폐비하고자 하므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조 참판을 추증했다.

[62] 임 석 주(林錫周)

자는 몽뇌(夢)요, 호는 매헌(梅軒)이며, 학행으로 유명한 수겸(守謙)의 후손으로 표저(浦渚) 조익(趙翼)의 문인이다. 문장과 학문이 뛰어나 교관으로 천거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인조 초기에 우계와 율곡 두 선생에 대한 문묘 종향을 앞장서서 제의하여 모든 선비들이 이에 승복하였으며, 학문으로 재당에 천거되었으나 덕을 감추고 나아가지 않았다.

[63] 정 난 종(鄭蘭宗)<1433~1487>

자는 국형(國馨)이요, 호는 허백당(虛白堂)이며, 본관은 동래이니, 명환(名宦) 사(賜)의 아들이다. 세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한림 학사가 되고, 호당에 들어갔으며, 좌리 공신이 되어 동래 부원군으로 봉함을 받았다. 벼슬은 이조판서에 이르고,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를 익혜라 했다.

[64] 정 도(鄭道)

자는 이지(履之)요, 본관은 해주이며, 송재(松齊) 문영(文英)의 아들이다. 광해군 때에 문과 급제하여 옹교, 사헌부 집의를 지냈다.

[65] 정 사(鄭賜)<1400~1453>

본관은 동래이며, 이조판서에 추증된 삼수정(三樹亭) 구령의 아들이다. 세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직제학이 되었고, 지조와 절개가 높았으며, 학문과 행실이 뛰어났다. 좌찬성에 추증되고 내산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완당사에 배향되었다.

[66] 조 사 수(趙士秀)

자는 계임(季任)이요, 호는 송강(松岡)이며, 본관은 양주이니, 문강공(文岡公)의 말생(末生)의 후손이다. 중종때에 이조판서를 거쳐 좌참찬에 이르고, 홍문과 제학, 세자 보양관을 지냈다. 청백리에 선발되고 시호를 문장이라 했다.

[67] 조 안 국(趙安國)<1501~1573>

자는 국경(國卿)이요, 본관은 풍양이며, 증병조참판 현범(賢範)의 아들이다. 연산군대에 무과 급제하여 여섯 차례나 지방으로 장군이 되어 출진했다. 은대포장을 지냈으며, 좌찬성을 추증하고, 옥풍군을 봉했다. 증손 좌익정 익이 묘표를 지었다.

[68] 지 계 최(池繼)< ? ~1636>

자는 태승(泰升) 또는 언숙(彦叔)이라 하고, 호는 표곡(豹谷)이니, 본관은 충주이다. 의재 용기의 후손인데, 인조때에 진무 공신에 책록되어 충성군이 되고, 한성 판윤을 지냈다. 병자호란에 신계의 서목촌에서 순절하여 나라에서는 관원을 파견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

[69] 지 낙 림(池洛林)

자는 원서(元瑞)요, 본관은 충주이며, 진사 한기(漢紀)의 아들인데, 무과에 급제하였다.

[70] 지 성 복(池性復)

자는 내경(來慶)이요, 본관은 충주이며, 무과 급제자 낙림(洛林)의 아들이다. 수직으로 도정을 지냈다.

[71] 지 성 은(池性殷)

자는 경수(敬修)요, 호는 용호(龍湖)이며, 본관은 충주이니, 훈신(勳臣) 표곡(豹谷) 개최(繼)의 후손이다. 생원시에 급제했고, 우애가 돈독하여 깨끗한 이름이 알려졌다.

[72] 지 한 기(池漢紀)

자는 여량(汝亮)이요, 호는 해관(海觀)이며, 본관은 충주이니, 훈신(勳臣) 개최(繼)의 후손이다. 순조때에 진사가 되었고, 문장으로 유명했다.

[73] 채 정 하(蔡廷夏)

응복의 조카이다. 문과 급제하여 지돈녕부사를 지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74] 한 경 록(韓景祿)

자는 중수(仲綏)요, 본관은 청주이며, 영의정에 추증된 승권의 아들이다. 중종의 제2녀의 혜옹주와 혼인하여 청원위가 되었으며, 평소에 깨끗하다는 명성을 들었다. 묘는 양주의 누원에 있다.

[75] 한 광 호(韓光浩)

본관은 청주이니, 진사 혁진의 아들인데 진사에 급제했다.

[76] 한 울(韓)

자는 자첨(子瞻)이요, 호는 송월당(松月堂)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광해군때에는 응시하지 않았다가, 인조때에야 과거에 응시해야 양시에서 모두 장원 급제했다. 벼슬은 한성 서윤을 지냈으며, 병자호란에 순절했다.

[77] 홍 숙(洪淑)

자는 순부(純夫)요, 시호는 장희(莊僖)이며, 본관은 남양이니, 동지중추원사익생의 손자이다. 연산군 2년(1496년)에 문과 급제하여 이조 참의를 지내고 중종때에 정국공신으로 당원국에 봉했다. 예조판서, 좌찬성이 되었으며, 혜정을 베풀어 청백리로 유명했다.

[78] 김 질(金秩)<高麗 ? ~ ? >

字는 國祥, 號는 松庵, 本海, 金寧君 始興의 后裔이다. 高麗朝에 벼슬이 少府 少監에 이르렀는데 李太祖가 受禪하던 初期에 옛날의 親舊의 情誼로서 原從功臣으로 策錄하고 禮曹判書

의 벼슬을 주어 여러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마침내 鄉山에서 늙었고 그의 節介를 온전히 지키었다. 이 史實이 野史에 記錄되어 傳한다. 墓所는 아산군 도고면 도산리에 있는데 太祖朝에 綸音을 내리고 도고상 一局에 牌를 下賜하여 禮葬하도록 命하였다. 碑碣이 있다. <朝鮮 輿勝覽>

[79] 남 간(南簡)<李朝 ? ~ ? >

本貫은 宜寧, 贈領議政 景文의 아들이다. 定宗朝에 生員이 되어 形曹佐郎이 되었고 文科에 及第하여 벼슬이 藝文館直提學에 이르고 淸介로서 일컬어 졌다.<朝鮮 輿勝覽>

[80] 장영실(蔣英實)<李朝 ? ~ ? >

李朝世宗때의 科學者, 本貫은 牙山, 벼슬은 上護軍에 이르렀으며, 世宗이 歷象에 관한 모든 기구를 製作하고자 할 때 鄭麟趾, 鄭招는 古典을 研究케 하고 李○, 蔣英實은 工役을 監督케 하여 7년만에 완성했다. 특히 世宗 20年(1438) 景福宮 뜰에 渾天儀를 간직한 欽敬閣을 세웠는데 蔣英實이 모든 工役을 監督했다. 또 西洋보다 근 2世紀나 앞서서 測雨期를 만들었으며 그밖에 大小간의대 仰釜日晷(日時計), 自擊漏(水時計), 日星定時計등을 製作監督하는 등 機械, 建築, 科學發展에 功이 컸다. <世宗實錄, ○黎室記述>

[81] 김 합(金)<李朝 ? ~ ? >

字는 회지, 本貫은 金海, 忠簡公 普의 孫子이다. 벼슬은 司宰監正에 이르렀다. 志行이 淸高하여 벼슬에 나아가기를 즐기지 않아 自然으로 돌아가서 德을 기르고자하여 비로서 牙州의 東쪽 竹東에 居住하였다. 太宗時 左贊成에 贈職되었다<朝鮮 輿勝覽>

[82] 김 윤(金胤)<李朝 ? ~ ? >

字는 允玉, 本貫은 金海, 忠簡公 普의 后裔이며 會之 의 孫子이다. 世祖朝에 武科에 及第하여 經歷이 되었다. 智勇이 過人하여 侍從으로서 功이 있었으므로, 王이 크게 拔擢하여 採用하였는데, 얼마되지 않아 卒하니, 官員을 보내어 致祭하게 하였고, 兵曹判書를 追贈하였다. <朝鮮 輿勝覽>

[83] 이 준(李峻)<李朝 ? ~ ? >

宣祖 29年(1596) 李夢鶴의 變亂을 當하여 賊의 檄文이 來到하니 즉시에 그 檄文을 가지고 온 使者를 斬首하고 곧 나라에 變亂을 上啓하였다. 亂이 平定된 後에 그 功이 特錄되었으며 司評에 除授되었다. <溫州誌>

[84] 정뢰경(鄭雷卿)<宣祖41年(1608)~仁祖17年(1639)>

李朝仁祖때의 志士, 字는 震伯, 諡號는 忠貞, 本貫은 溫陽, 成均生員 晩의 아들이다. 20才에 學者가 되어 名望이 높았으며 23才때 文科에 壯元及第, 試驗官 金○, 張維의 勸誘를 받고 처음에 成均 典籍이 된후 工, 禮, 兵曹의 左郎을 거쳐 玉堂(弘文) 春坊(世子시강원)에 들어갔다. 丙子胡亂이 있는 이듬해인 仁祖 15年(1637) 昭顯世子가 人質로 瀋陽에 가니 從事官들의 大部分은 瀋陽에 가길 꺼려 했으나 雷卿은 가기를 自請했으며 1639年 彌善에 올라 自請하여 瀋陽에 가서 세자를 모셨다. 그때 청나라에 鄭命壽, 金突이라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大部分 본래 우리나라 賤人으로 光海君 10年(1618) 建州싸움때 포로로 청나라에 잡혀간 뒤 淸皇帝의 총애를 받아 세도가 當당해지자 우리나라 임금을 모독하고 나라를 팔아 행하는 일이 많았으나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雷卿은 이 두 역적을 殺害하고 나라에 미치는 해를 제거하고자 기회를 엿보던차 우리나라에 보내는 歲弊 命壽등이 도둑질하며 雷卿은 그들과 사이가 좋지못한 청나라 사람을 시켜 고발하고 그 죄상을 극언하였다. 때 마침 세자의 賓客으로 淸나라에 오래있던 朴○가 反對하여 사건이 뒤집혀서 도리어 雷卿이 罪를 받게되 仁祖는 처음에 救出하려 했으나 領議政 崔鳴吉이 朴○의 疏가 옳다하매 결국 그해 4月 瀋陽에서 處形되었다. 죽은뒤 세자 大君들이 罔했으며 贊成이 追贈되고 諡號를 받

았다.<仁祖實錄, 國朝人物考, 瀋陽日誌.....等>

[85] 임 기(任琦)<李朝 ? ~ ? >

字는 稚圭, 號는 醒菴, 本貫은 川, 退體 鼎臣의 아들이다. 宣祖朝에 進士에 오르고, 壬辰倭亂에 義兵을 일으켜 戰功이 있었다. 宣武原從功臣으로 策錄되어 縣監에 特拜되고 承旨로 追贈되었다. <朝鮮 輿勝覽>

[86] 이요신(李堯臣)<李朝 ? ~ ? >

字는 汝欽, 號는 栗里 本貫은 德水, 楓巖 의 曾孫, 退溪의 門人이다. 篤志로써 힘써 배웠으며 自身の 法度를 甚히 嚴하게 하였다 宣祖朝에 司馬誌(進士試)에 及第하였으며, 退溪는 朱子の '白鹿洞賦'를 써 주면서 그를 激勵하였다.<朝鮮 輿勝覽>

[87] 조지유(趙之柔)<李朝 ? ~ ? >

號는 處翁, 時菴 相禹의 父이다. 秉節校尉로서 龍 衛 副司直을 歷任하였고 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 兼經筵○贊官에 追贈되었다. 松江 鄭澈의 문인이며 宣祖朝에 文章과 學問으로서 司評에 薦擧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隱居하였다.<溫州誌>

[88] 남국걸(南國傑)<李朝 ? ~ ? >

本貫은 宣寧, 直提學 簡의 后裔이다. 進士에 올라 勇校尉가 되었고 壬辰倭亂때에 義兵將으로 朔寧에서 戰死하였으므로 牙山郡 道高面 柿田里에 虛葬하였다. <朝鮮 輿勝覽>

[89] 남국신(南國信)<李朝 ? ~ ? >

字는 士立 本貫은 宣寧, 國傑의 아우이다. 壬辰倭亂에 의로는 나라를 爲하고 아래로는 民을 爲하여 원수 讐를 爲 스스로 맹세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다가 殉國하니 李舜臣과 李山海가 그를 칭찬하여 [忠義堂]이라 하였다. <朝鮮 輿勝覽>

[90] 이분(李芬)<明宗 21年(1566)~光海君 11年(1619)>

字는 馨甫, 號는 默軒 本貫은 德水, 義臣의 아들 鄭述의 門人, 李忠武公의 姪이다. 壬辰倭亂時 季父忠武公이 統制使로 있을 때 芬이 軍中에 있으면서 讀書를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 忠武公이 軍中文書를 一任하였다. 明의 教授兵이 온 뒤에 芬이 接待를 민첩하게 하고 應答을 事理에 맞게하자 兩陳將士가 모두 曠服하였다. 宣祖 36年(1603) 司馬試에 合格, 學行으로 薦擧되어 王子師傅이 되었다가 工曹佐郎에 올랐다. 光海君 1年(1609) 別試文科(丙科)에 及第, 刑曹佐郎을 지내고 書狀官으로 明나라에 다녀온 후 行兵曹正郎으로 宣祖實錄의 편찬에 參與하였다. 明나라에 갔다가 僧의 班列이 前頭에 있는 것을 보고 한탄하기를 [儒, 釋輕重의 論이 땅으로 들어 갔다고 하였다] 그는 聖賢의 글을 널리 耽讀한외에 音樂, 音律과 算數에도 매우 밝혔다. 著書로 家禮剝解, 邦禮編이 있다. <宣祖實錄, 國朝人物考>

[91] 표 헌(表憲)<李朝 ? ~ ? >

李朝宣祖때의 譯官, 本貫은 新昌, 御前通事로서 明나라 使臣을 接見하고 接宴할때 臨機應變的 通譯과 措置로서 王의 困境을 謾免하게 했으며 宣祖 25年(1592) 壬辰倭亂때 義州에 避亂中인 王이 明나라에 가려함을 諫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벼슬은 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宣祖實錄, 通文館志>

[92] 성 준(成準)<李朝 ? ~ ? >

字는 士則, 號는 三松, 本貫은 昌寧, 桑谷 石因의 七世孫이다. 文學과 筆法이 當時에 推仰

되었으며, 沙溪와 寒岡 兩先生과 더불어 學文을 講論하고 禮道를 議論하였다.

壬辰倭亂 때에는 왕을扈從하여 龍灣(義州)에 이르러 一等功臣에 參與하였으며 아홉 고을을 歷典하여 清白하다는 評이 널리 알려졌다. 婦人 金氏가 光海君의 姨母였으나, 準은 時事를 憂歎하여 權要에 處하지 않고 牙山縣 下道里(位置未詳)에 避하여 살면서 壓海亭을 짓고 거문고와 술로써 스스로 즐기니, 當時의 文士들이 모두 詩를 지어 그의 아름다움을 欽慕하였다. <新定牙州誌>

[93] 홍익현(洪翼賢)<李朝 ? ~ ? >

字는 君友, 本貫은 南陽, 大司憲 興之의 曾孫이며 己卯名賢 士俯의 孫子이다. 科擧보는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며 推薦을 받아 始興察訪과 水運判官에 除授되었으나 모두 就任하지 않았다. 壬辰倭亂이 끝난 후에 牙山郡 鹽峙面 松谷리에 와서 居하면서 村名으로써 스스로 松谷이라고 號를 지었다. 長者池 湖畔에 隱居室을 지어 즐기면서 門을 닫고 學問을 研究하였으며, 몸가짐이 淸高하고 家訓이 甚히 整頓되어 모든 고장 사람들이 敬慕하였다.

李 忠武公이 아직 顯達하지 못했을 때에 洪松谷이 西平 韓浚謙과 西崖柳成龍에게 말하기를, "李某가 너그럽고 勇猛하며 서로 救濟하기를 힘쓰니 마땅히 큰 그릇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果然뒤에 이와 같음을 보고 當時의 宰相들이 사람을 알아보는 그의 識見에 歎服하였다고 한다.

丹巖 閔 鎮遠 相公이 그의 墓誌에 "몸에 學問을 쌓아 去就를 가벼이 하지 않았으며 後學을 私淑하게 하여 儒風을 振興시키고 世教를 扶植하였으니, 옛적에 이른바 隱君子란 바로 공이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記錄하였다. <新定牙州誌>

[94] 이우신(李禹臣)<李朝 ? ~ ? >

本貫은 德水, 李忠武公의 아우이다. 벼슬은 參奉을 지냈으며 行誼로 名望이 높았다. <新定牙州誌>

[95] 박 홍(朴弘)<李朝 ? ~ ? >

牙山縣人, 壬辰倭亂때에 長劍을 만들어 칼날에다 [丹心報國]의 四字를 새겨 돌려메고 宣祖가 계신 行在所를 向하여 北上하던중 京畿道高陽 땅에 이르러 倭賊 100餘名을 만나 섬멸한 다음 義州로 向하여 北上하던 차에 宣祖가 還都하게 되어 中止하고 돌아왔으며 李舜臣將軍의 陳中으로 自進入營하여 始終一貫最後까지 勇戰한 猛將으로 露梁海戰에서 戰死하였다. <朝鮮 輿勝覽>

[96] 강호(姜鎬)<宣祖 38年(1605) ~ ? >

字는 景叔, 掌令鶴年의 아들이다. 顯宗때에 司馬試에 及第하고 이어 武年文科(乙科)에 及第하여 벼슬이 三司를 거쳐 江原監司에 이르렀다. 墓는 牙山郡 溫井面 葛山里에 있다. <孝宗實錄, 顯宗實錄>

[97] 이 열(李 열)<李朝 ? ~ ? >

字는 子興, 本貫은 德水, 李忠武公의 次子이다. 宣祖朝에 始仕하여 光海君 때에 政治가 어지러움을 보고 鄉廬에 屎居하였다. 童婢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竹]이라 하며 絶色이었다. 光海君이 中涓(宮名)으로 하여금 銀을 싸가지고 가서 그 童婢를 사오도록 하였다. 이에 열이 말하기를 "女色으로서 王에게 바치어 아침하는 일은 人臣의 大戒하는 바인데 하물며 私賤을 임금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한번 죽더라도 敢히 뜻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니, 中涓이 銀을 던지고 가 버렸다. 이에 열은 빠른 걸음으로 뒤를 따라가서 素沙에 이르러 그 銀을 되돌려 주었으니 그의 大節이 이와 같았다. 仁祖元年(1623) 忠勳府 都事에 任命되었으며, 左承旨에 追贈되었다. <新定牙州誌>

[98] 이명달(李命達)<李祖 ? ~ ? >

字는 汝顯, 號는 月村, 本貫은 德水, 名臣邊의 后裔이다. 生員을 거쳐 벼슬이 仁川府使에 이르렀다. 光海君때에 廢母論이 일어나매 儒生들을 引導하여 賊臣을 斬하기를 請하는 上疏를 올렸기 때문에 數年間 獄中에 拘禁되었다. 顯宗時 史曹參判에 贈職되었다. <朝鮮 輿勝覽>

[99] 임의지(任義之)<李朝 ? ~ ? >

字는 逸少, 本貫은 川, 退體 臣의 孫子이다. 光海朝에 文科及第하여 벼슬이 司藝에 이르렀으나 昏朝를 當하여 庭請을 할때에 벼슬을 버리고 不參하였다. 史曹參判에 追贈되었다. <朝鮮 輿勝覽>

[100] 김남혁(金南赫)<李朝 ? ~ ? >

字는 汝晦, 本貫은 金海, 鉉의 아들이다. 그는 文章에 能하였고 家庭의 法度를 엄히 지키었다. 丙子胡亂에 그의 父親이 賊에게 被殺되매, 어린 나이로 罔極해 하면서 喪禮를 치르었고 平生을 痛恨하여 三年의 追服을 입었다. 그리고 怨 를 갚고자 하여 編髮을 하고 두 차례나 潘陽에 들어갔다가 恨을 머금고 돌아와서는 끝내 科擧를 보지 않았다. 文章과 學問으로 이름을 떨쳤다. <朝鮮 輿勝覽>

[101] 임석주(林錫周)<李朝 ? ~ ? >

字는 夢賚, 號는 梅軒, 學問과 德行으로 이름난 守謙의 后裔이며 浦渚趙翼의 門人이다. 文章과 學問으로 士友의 推重하는 바 되어 敎官으로 薦擧되었으나 不任하였다. 仁祖初에 牛溪(成渾)와 栗谷(李珥) 兩先生을 文廟에 從亨할 것을 論議하여 士論을 모두 承服시켰으며 學問으로 齋郎에 薦擧되었으나 德을 숨기고 나아가지 않았다. <朝鮮 輿勝覽>

[102] 윤승원(尹承元)<李朝 ? ~ ? >

李朝時代 武科에 及第하여 벼슬길에 나갔다. 仁祖 14年(1636)에 어머니의 病이 危篤하다는 連絡을 받고 故鄉에 내려왔다가 丙子胡亂을 당하여 勤王을 위해 南漢山城으로 달려가던 중 龍仁, 衿川에 이르러 巡察使의 陳中에 들어가 敵軍을 만나 勇猛을 떨쳐 接戰하다 戰死하였다. <輿地圖書(牙山縣)>

[103] 조래양(趙來陽)<李朝 ? ~ ? >

字는 長吉, 號는 道山, 儒賢 翼의 아들이다. 進士에 及第하였으나 仁祖 14年(1637)에 淸國과 講和한 後에는 벼슬에 뜻이 없어 물러나와 文章과 學問을 닦았다. 節行과 文章으로 世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左承旨로 追贈되었다. <朝鮮 輿勝覽>

[104] 남경복(南京福)<李朝 ? ~ ? >

字는 禧叔, 本貫은 宣寧, 忠臣 國信의 아들이다. 仁祖 丙子胡亂 後에 世事를 謝絶하고 지냈으며, 浦渚 趙翼의 推薦으로 監役과 主簿에 除授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고 餘生을 마쳤다. <朝鮮 輿勝覽>

[105] 이 순(李淳)<李朝 ? ~ ? >

字는 壬厚, 號는 蒼谷, 本貫은 韓山, 牧隱 穡의 后裔이다. 從兄 華庵 洽과 더불어 牛溪의 門下에서 受業하여 文章과 學問이 高明하였다. 仁祖朝에 벼슬이 都承旨에 이르렀으나 丙子胡亂의 敗報를 듣고 근심과 울분을 못이겨 피를 토하고 세상을 떠났다. <朝鮮 輿勝覽>

[106] 이진행(李震行)<李朝 ? ~ ? >

號는 西峯, 本貫은 禮安, 參奉으로서 丁卯胡亂을 당하여 金靈과 더불어 義士들을 거느리고 賊을 討伐하였으며 또한 金靈과 더불어 斥和 上疏하였다. 丙子胡亂 때에는 社主(社稷壇의 神主)를 받들고 江華島에 들어갔다 奉還日에 稷令으로 除授되었다. 文章으로 一鄉에 이름을 떨쳤다. <新定牙州誌>

[107] 유희증(兪希曾)<李朝 ? ~ ? >

牙山出身人, 丙子胡亂時에 義兵을 모아 南漢山城으로 勤王하였고 그 아들 兪 는 白衣로서 扈從하였다. <朝鮮 輿勝覽>

[108] 이 훈(李薰)<李朝 ? ~ ? >

本貫은 德水, 李忠武公의 아들이다. 李造의 亂에서 싸우다가 殉節하니 正祖時에 兵曹參議를 追贈하였다. <朝鮮 輿勝覽>

[109] 김 영(金靈)<李朝 ? ~ ? >

號는 白石堂, 本貫은 順天, 伯슬은 翊衛였다. 丁卯胡亂에는 斥和를 上疏하였고 沙溪 金先生이 號召使가 되어 靈으로써 義兵將을 삼으니 靈이 李震行과 더불어 義兵을 糾습하던 中朝廷에서 淸兵과 講和하였으므로 中止하였다. 丙子胡亂에 또 斥和를 上疏하였으며 後에 朝廷에서 累次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新定牙州誌>

[110] 채응복(菜膺福)<李朝 ? ~ ? >

本貫은 平康, 進士時鏡의 孫子이다. 進士를 거쳐 文科에 及第하여 執義 伯슬을 하였다. 辛壬士禍때에 數次의 上疏를 올려 善良한 士類를 扶護하기에 努力했다. <朝鮮 輿勝覽>

[111] 이 신(李薰)<李朝 ? ~ 仁祖 5年(1627)>

本貫은 德水, 薰의 아우이다. 丁卯胡亂에 從兄 堯을 따라 義州에서 힘껏 싸우다가 함께 殉節하니 正祖時에 兵曹參議를 追贈하였다. <朝鮮 輿勝覽>

[112] 이제형(李齊衡)<李朝 ? ~ ? >

字는 元玉, 號는 醉睡軒, 景明君의 後孫이다. 仁祖 己卯年(1639)에 文科에 及第하여 官은 執義에 이르렀다. 正直으로 스스로를 지켰으며 時流와 더불어 俯仰하기를 즐기지 않았다. 靈光等の 여러 고을의 員이 되어서는 威嚴과 恩惠를 並行하였으며 선비의 아들 중에서 優秀한 者를 選拔하여 親히 教育을 加하니 儒風이 크게 興하였다. 靈光의 선비들이 歲月이 갈수록 더욱 尊敬하고 欽慕하여 長川書院에 追配하였다. 淸白하였기 때문에 吏曹參判과 提學을 追贈하였다. <新定牙州誌>

[113] 박유연(朴由淵)<李朝 ? ~ ? >

字는 躍起는 逸齊, 潛洽의 아들이다. 孝誠과 友愛가 남달리 뛰어났으며 學同이 크고 넓었다. 孝宗朝에 洗馬에 特除되어 白衣로서 經筵에 入參하여 王을 對하였으며 드디어 世上으로 물러나와 末路의 元人이요 聖伐의 逸民이 되었다.

그 後에 筵臣이 말씀을 드려서 特平을 追贈하였다. <新定牙州誌>

[114] 신명균(申命堅)<李朝 ? ~ ? >

字는 叔固, 號는 雲浦, 本貫은 平山, 化堂 敏一의 孫子이다. 孝宗朝에 學行이 뛰어나 厚陵 參奉으로 薦擧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吏曹判書에 追贈되었다. <朝鮮 輿勝覽>

[115] 임 창(任敞)<李朝 ? ~ ? >

字는 晦而, 號는 慷慨翁, 本貫은 川退休 臣의 后裔이다. 肅宗壬午年에 仁顯王后의 守關을 위하여 號泣陳疏하며 復位를 꾀하였다. 景宗 癸酉에 禍를 입었고 獨醒社에 配亨되었다. <朝鮮 輿勝覽>

[116] 임 동(任 洞)<李朝 ? ~ ? >

字는 仲夏, 本貫은 川, 竹室 弘望의 아들이다. 肅宗朝에 文科及第하여 벼슬이 執義에 이르렀다. 어려서 부터 誠禮를 극진히 하였으며 法을 지키고 倫理를 扶持하여 奸朋에 힘써 꺾었다. <朝鮮 輿勝覽>

[117] 강태정(姜台庭)<李朝 ? ~ ? >

牙山出身人, 牙山縣監所管의 官軍을 이끌고 竹山으로 달려가 都巡撫使 吳命恒의 官軍과 合流하여 李麟佐 叛亂軍討伐作戰에 參加했다. 이 싸움에서 叛軍은 慘敗하여 흩어졌다. <朝鮮 輿勝覽>

[118] 박진계(朴晋揆)<李朝 ? ~ ? >

字는 君錫, 本貫은 咸陽, 儒賢 知誠의 玄孫이다. 英祖朝에 儒賢의 祀孫으로서 特別히 參奉에 除授되었고 벼슬은 縣監에 이르렀다. 戊申年 李麟佐의 叛亂에 義兵을 糾合하였는데, 얼마가지 않아 亂이 平定되었다. 벼슬에 있을 때에 淸政이 많았고, 長壽하여 僉中樞府事에 陞職하였다. <朝鮮 輿勝覽>

[119] 허 욱(許沃)<李朝 ? ~ ? >

字는 啓心, 號는 述峯, 本貫은 陽川, 陽川君 亨孫의 后裔이다. 英祖朝에 文科에 及第하여 여러차례에 郡邑을 맡아 다스렸는데 淸白함으로써 世上에 이름이 났었다. 墓所는 牙山郡鹽峙面山陽里에 있다. <朝鮮 輿勝覽>

[120] 김 근(金瑾)<李朝 ? ~ ? >

字는 仲寶, 號는 養閑齋, 本貫은 金海, 忠簡公 普의 后裔이다. 肅宗朝에 生員科에 及第하였다. 바탕이 純粹하고 뜻이 맑아서 少年時節부터 學問을 좋아하여 맑은 시냇가에 집을 짓고 [養閑齋]라는 扁額을 달아 寓意하였다. <朝鮮 輿勝覽>